



유럽 보험회사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최 원 선임연구원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Authority, EIOPA)은 유럽 보험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¹⁾
 -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유럽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16년 완전이행이 예정된 솔벤시2 (Solvency II)²⁾ 기준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였음.
 - 대상 보험회사들의 현재 자본 적정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평가함.
 - 자산 가격 폭락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Core Stress Test Module)와 저금리 환경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Low Yield Module)를 시행함.
-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결과³⁾, 2013년 말 기준 유럽의 대부분 보험회사가 솔벤시2에 부합하는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전체 보험회사의 8%가 솔벤시2에서 요구하는 최소요구자본(Minimum Capital Requirement, MCR)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전체 회사의 14%가 지급능력요구자본(Solvency Capital Requirement, SCR)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주가 폭락이 전이되어 위기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능력요구자본(SCR)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회사 비율이 14%에서 44%로 확대되었으며, 위기의 원인이 채권가격 폭락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27%로 상승하였음.

1) EIOPA(2014. 11. 28), "EIOPA Insurance stress test 2014".

2) 보험회사에 내재한 다양한 리스크 프로파일을 토대로 요구자본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솔벤시2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 수준에는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최소요구자본(MCR)과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요구되는 지급능력요구자본(SCR)이 있음.

3) Core Stress Test Module의 경우 167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 추가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 위기로 인하여 자본 적정성이 악화된 경우 대부분 보험회사가 자본 확충(40%), 포트폴리오 조정(30%), 기타 방법(30%)을 통하여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대규모 재해, 준비금 부족, 급격한 장수리스크 확대, 대규모 계약 해지 등의 보험사고와 관련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도 자기자본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재보험 등을 통하여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임.

〈표 1〉 스트레스 테스트(Core Stress Test Module) 결과

구분	평균	지급능력요구자본 (SCR) < 100%	차이(b-a)
2013년 말 기준(a)	159%	14%	-
가정1: 주가 폭락으로 인한 위기(b)	105%	44%	+30%p
가정2: 채권가격 폭락으로 인한 위기(b)	130%	27%	+13%p

자료: EIOPA(2014. 11. 28), "EIOPA Insurance stress test 2014".

■ 저금리 환경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지급능력요구자본(SCR)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회사 비율이 확대되었는데 유럽 경기회복세 지연과 저금리 지속이 전망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3년 말 기준 저금리 환경의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보험회사⁴⁾들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해 본 결과, 전체의 16%가 솔벤시2에서 요구하는 지급능력요구자본(SCR)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일본식 저금리 환경이 지속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지급능력요구자본(SCR)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회사 비율이 16%에서 24%로 확대되었음.
- 저금리 환경에서 장·단기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전체의 20%가 지급능력요구자본(SCR)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저금리 환경의 스트레스 테스트(Low Yield Module) 결과

구분	평균	지급능력요구자본 (SCR) < 100%	차이(b-a)
2013년 말 기준(a)	186%	16%	-
가정1: 일본식 저금리 가정(b)	162%	24%	+8%p
가정2: 저금리 환경에서 장·단기금리 차이 발생(b)	172%	20%	+4%p

자료: EIOPA(2014. 11. 28), "EIOPA Insurance stress test 2014".

(EIOPA, FT 등)

4) 저금리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Low Yield Module)의 경우 225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음.